

# 1. 서라연 시사토론

칠레 바첼레트 대통령 당선의 의미와 향후 전망

사회자: 김기현 (선문대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교수)

토론자: 기현서 (한·베네수엘라 경제협력센터 소장, 전 칠레대사)

송기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회장)

이상현 (전북대 스페인중남미학과 교수)

(이상 가나다 순)

일시: 2013년 12월 20일 (금) 오후 3시

장소: 한·중남미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LG손해보험 강남빌딩 14층)

주최: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후원: 한·중남미협회



사진 오른쪽부터 기현서, 김기현, 송기도, 이상현

김기현: 지금부터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가 주최하는 제1회 시사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칠레 바첼레트 대통령의 당선 의미와 향후 전망입니다. 먼저 대통령에 당선된 바첼레트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칠레에서 가장 유명한 신문이 두 개 있지요. 『엘 메르쿠리오』(El Mercurio)와 『라 테르세라』(La Tercera)인데, 그중 『라 테르세라』의 사설을 봤더니, “마테이 후보가 합리성과 이성에서는 승리했지만 감성에서 패배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좌파에 바첼레트가 없었다면 좌파가 결코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하던데, 그만큼 바첼레트 개인의 중요성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첼레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요인으로 그러한 지지를 얻게 되었는지, 그런 면을 언급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침 바첼레트의 전(前) 임기 기간 중 칠레에서 대사를 지내셨던 기현서 대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현서: 우선 바첼레트 대통령이 칠레사람들의 감성에 호소력이 높았다는 분석과 표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칠레 언론에서 바첼레트가 ‘그랜마’(Granma) 이미지를 지녔다고 하는데, 바첼레트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따뜻하고 소박한, 소위 가난한 서민들을 감싸줄 것 같고 보호해 줄 것 같은 감성적인 이미지들이 선거 득표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재임 시절, 바첼레트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에도 서민들과 광장에서 민속춤을 함께 추는 등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였습니다. 또 한편 개인적으로 바첼레트는 컨센서스를 향한 아주 훌륭한 협상자로 봅니다. 그 당시 바첼레트 대통령 정부가 국회에서 다수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정족 득표수를 채우기 위해 협상이 필요했습니다. 협상을 위해서 바첼레트는 야권 의원들과도 계속 소통을 하고, 접촉하고, 전화하고, 점심도 같이 먹으면서 협상하는 자세를 보였

습니다. 그래서 바첼레트 대통령이 지닌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수평적 리더십과 공감의 정치입니다. 그러한 리더십이 국민들에게 각인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국 언론은 바첼레트 대통령을 ‘리얼리스틱 프래그마티스트’(realistic pragmatist)라고 표현했더군요. 즉, 실용주의자로서 현실감을 강조하는 훌륭한 지도자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다음으로 이상현 선생님, 말씀해주시죠.

이상현: 대부분 맞는 말씀입니다. 칠레는 기본적으로 정당정치가 상당히 발달한 나라이고, 의회의 힘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중앙집권적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의회의 힘의 밸런스가 잘 유지되었습니다. 칠레 대통령의 인기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권한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인데, 이는 대통령이 조정을 많이 해야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이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다시 말해 정치적 스킬이 뛰어난 대통령을 요구하는데다, 다당제이고, 양 진영이 모두 코알리션(coalition)이다 보니, 각 코알리션 내에서도 그렇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의회와도 협상을 잘해야 되죠. 이렇게 칠레에서는 조정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보다는 조정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주로 대통령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첫째로 제도적 차이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피노체트 독재 이후 민주화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갈등을 완화시키는 스타일을 선호하게 되는데, 바첼레트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필하지 않았나 합니다. 여성이라는 점도 잘 작동한 것 같습니다. 마초적인 칠레 사회에서 소위 바지 입은 여성의 모습, 상당히 액티브한 엄마라고 할까요, 그러면서도 포용력 있는 이미지가 호소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기도: 저는 1994년 칠레에서 1년간 체류한 적이 있어요. 기현서 전 대사님이나

이상현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는데, 사실 바첼레트는 두 번이나 이혼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랜마의 친숙한 이미지를 보이긴 했지만 정상적, 일반적 감정을 유지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칠레뿐만 아니라 중남미 전체가 마치스모 성향이 있잖아요. 따라서 그런 개인사는 분명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첼레트 대통령이 상당히 노련한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이 그 나라 국민의 수준과 같다고 한다면, 칠레의 정치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피노체트라는 독재자를 탄생시켰지만, 칠레 사람들이 갈등적이기보다는 타협적인 태도를 지닌 것 같아요. 바첼레트의 승리에 대해 감성의 승리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바첼레트가 정치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소수 세력을 끌고 전체 칠레를 향해서, 칠레가 분열되지 않게 한 거죠. 사회당 출신의 또 다른 전 대통령 라고스와 바첼레트를 비교하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바첼레트가 재집권하게 됐으니 대단한 여성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더불어 바첼레트의 승리 요인에는 국제적 환경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현재 ABC(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국가의 대통령이 모두 여성이지만, 2006년 당시 바첼레트는 남미에서 선출된 최초 여성 대통령이었지요. 그 후로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와 브라질의 호세프가 당선 됐고요. 결국은 남미의 대표적 두 국가의 수장이 모두 여성이 된 거죠. 이게 이번 바첼레트의 재집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중남미의 정치적 흐름은 2000년대 와서 차베스 대 물라, 급진 좌파 대 실용주의로 대변되고, 기현서 대사님이 리얼리스트 프래그마티즘이라고 얘기하신 실용좌파의 대표가 물라죠. 그런데 그를 지지한 사람이 키르치네르, 바첼레트예요. 결과적으로 중도좌파의 부상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바첼레트가 당선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경제적 성과로만 본다면 직전 우과 피네라 정부가 굉장히 잘했던 말이죠. 중남미 다른 지역에 비하면 5.8%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성장률을 보였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바첼레트를 선택한 거죠.

김기현: 바첼레트의 개인적 인기보다는 중도좌파를 향한 중남미의 전반적 흐름 속에서 바첼레트가 당선됐다는 말씀이신데요. 또 바첼레트가 대화와 타협, 갈등 조정의 역할이 뛰어났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감성적 측면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TV를 보면 바첼레트는 굉장히 웃을 수수하게 입고 나오잖아요. 지금 남미 3개국 여성대통령을 보면 후세피도 웃을 굉장히 수수하게, 동네 아줌마가 슈퍼 갈 때처럼 입고 있죠.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조금 차려입기는 하지만, 아르헨티나 TV를 보면 복장은 그래도 행동은 굉장히 소탈하죠. 노동자들과 어깨동무도 하고 말이죠. 그런 친근감, 그런 것이 중남미에서 크게 어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첼레트가 마테이를 앞선 것도 바로 그런 점이 중요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기현서: 저는 현지 대사로 있으면서 라고스 대통령과 바첼레트 대통령, 두 분을 모두 지켜볼 수 있었고, 그들과 직접 대면도 해봤어요. 두 대통령을 비교해보면 라고스 대통령은 학자 스타일에 논리가 강하고, 강한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첼레트 대통령은 온화한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없는 것 같지만 충분한 자신감이 느껴지는 그런 또 다른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런데 바첼레트 개인의 이력을 보면 그다지 순탄한 삶은 아니었죠. 그래서 삶을 통해 내면적으로는 강인한 정치적 의지나 주관을 가지면서도, 외부적으로는 협상을 이끌어가는 조정능력,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지요.

송기도: 그런데 중남미 대다수의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 한국적 시각에선 거의 다 포퓰리스트적 지도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포퓰리스트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쓰고 나쁘게 이해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그렇게 부정적 용어만은 아니거든요.

기현서: 중남미 문화가 그런 거니까, 우리 문화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송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중남미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이 되려면 어릴 때부터 대중 앞에서 연설하고 대중적 친화력을 갖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 정치인은 그렇게 정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지명하거나, 돈으로 사거나, 그런 식으로 정치인이 되니까 대중과의 소통 능력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대중과의 소통 능력을 포퓰리스트로 몰아붙이죠. DJ, YS, 노무현 전 대통령들은 포퓰리스트적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포퓰리스트는 아니죠. 대중과 접근 자체를 하지 않죠. 그래서 소통을 하지 않는다 하니까, “원칙대로 가는 건 자랑스러운 불통”이라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중남미에서 그런 정치인은 살아남을 수가 없죠. 차베스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차베스가 쿠데타를 했다고 하지만, 소통 능력이 없었다면 살아남을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키르치네르나 바첼레트의 옷 입는 스타일이야 그렇다치고, 예전에 카를로스 메넴 아르헨티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약간 날라리 스타일인데도 포퓰리스트란 말이죠. 단한 포퓰리스트죠.

이상현: 그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하는데, 우리가 바첼레트에 대해 대화와 타협, 포용력, 어머니와 같은 이미지라는 장점을 이야기하고, 포퓰리스트적으로 대중연설도 잘하고 토론도 잘한다고 하죠. 그런데 바첼레트에 대해 가려진 것 중 하나가 바첼레트가 아주 유능하다는 겁니다. 바첼레트는

소아과 의사 출신에 5~6개국어(영어, 불어, 독어, 포어, 스페인어)에 유창하고, 맡은 일 중에서 잘못된 일이 없어요. 본인이 의사였으니 보건사회부장관도 아주 잘했죠.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바첼레트가 예전에 국방부 장관 임기를 마칠 때 국방부 장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수십 년간 가장 위대한 국방부 장관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엔에서 활동할 때도 연설하는 걸 보면 아주 똑똑하죠. 기자든 학자든 바첼레트가 포폴리스트적이고 대중과의 친화력이 높다고 하는데, 바첼레트는 기본적으로 지적 능력도 상당히 높아요. 그걸 기본으로 지니고 있고, 거기에 포용력이 겸비되고, 서민의 눈높이에 잘 맞추는 정치적 스타일도 더해진 것이죠.

송기도: 게다가 이혼을 하고 세 자녀를 혼자서 키웠는데도 말이지요. 다른 중남미 국가, 멕시코나 콜롬비아에서도 그렇겠지만, 우리 사회 같으면 어쩔을까요. 대통령으로서 그런 점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김기현: 더욱이 중남미에서 가장 보수적인 칠레에서 말이지요.

송기도: 대단하지 않나요? 바첼레트가 그러는데, 자기는 다양한 여성문제들을 이해한다더군요. 조금은 치고나가는 느낌이 있지만, 어쨌든 그게 사람들의 동감을 산 것 같아요. 보통은 정상적인 가정, 남편이 있고 아이도 있는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을 높이 평가할 텐데 말이지요.

김기현: 칠레 엘리트 계층이나 상류사회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따라서 바첼레트의 그런 면이 칠레의 보수적 상류사회에 받아들여지기는 아주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칠레의 대중은 그런 것들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좌파 후보였기에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성공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현: 개인사도 있죠. 망명도 갔으니까요. 그게 오버랩되니까 보수층이 쉽게

공격을 못하죠.

기현서: 제가 바첼레트 대통령의 멘트를 하나 적어왔습니다. “나는 증오의 희생자였다. 하지만 나는 이해와 사랑과 관용으로 승화시키려고 노력했다.” 이게 그녀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온화한 카리스마라고 할까요?

김기현: 가야 할 길이 멀어서 바첼레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 결선투표의 최종 결과를 보면 누에바 마요리아(Nueva Mayoría, 바첼레트 소속 당)가 62.16%를 득표했고, 알리안사(Alianza)의 마테이 후보가 23.83%입니다. 바첼레트는 민주화 이후 실시된 모든 대선들 중에서 최고 득표율로 당선되었어요. 바첼레트의 압도적 승리인데 그에 대해 칠레의 보수 언론인 엘 메르쿠리오는 투표율을 문제로 삼더라고요. 투표율이 낮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득표수를 따지면 크게 높은 것이 아니라고 시비를 거는데, 그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이상현 교수님부터 말씀해주시죠.

이상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선 제도적으로 보면, 작년부터 선거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라틴아메리카 많은 나라들이 그렇지만, 예전에 칠레 선거는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칠레에서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들은 투표가 맨더토리(mandatory)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투표를 해야 했던 거죠. 투표하지 않으면 벌금이 200불에 달합니다. 그런데 한 번 등록하면 평생 유효하니, 학생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유권자 등록을 기피해요. 혹시라도 투표를 못하면 벌금 내는 것이 무서워서요. 이게 작년 지방선거부터 바뀌었어요. 유권자 등록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투표 의무제는 폐지된 것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유권자와 자율 투표제가 투표율 하락의 주요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제도적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 선거의 결과가 뻔했다는 것



입니다. 지금까지 칠레 선거는 대부분 1라운드에서 좌파와 우파 연합이 48:47 정도 되고, 공산당 같은 제3후보가 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결선투표는 51:49 정도의 진행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라운드에서 좌파 연합의 바첼레트는 48%로 예전과 같이 득표했지만, 무소속(인디펜덴트) 후보들이 약진해, 우파 연합의 마테이가 25%밖에 득표하지 못했습니다. 엔리케스 오미나미(Enriquez Ominami)나 파리시 페르난데스(Parisi Fernández)와 같은 무소속 후보의 표가 바첼레트에게 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결과가 뻔했던 거죠. 그래서 투표율이 낮았던 것 같아요.

기현서: 낮은 투표율에 대해서는 저도 이상현 교수와 같은 생각입니다. 우선 무소속을 언급하셨듯이, 11월 17일 1차 투표의 투표참여율이 49%, 그리고 12월 15일 2차 투표가 42%로 7%가 낮아졌어요. 정치적 무관심, 해보야 뻔하다는 점, 그리고 지지당이 알리안사나 누에바 마요리아가 아니어서 무소속을 찍었는데, 결선투표에서는 투표할 대상이 없으니 투표하지 않은 점도 있죠. 이게 그 7%가 아닌가 싶습니다.

송기도: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차 투표 결과가 뻔히 정해진 거니까, 7-8% 하락은 예상 가능하죠. 문제는 바첼레트 후보가 62%를 받았다고 해도 투표율 40%에 득표율 60%라면 전체 국민의 25% 정도, 즉 국민의 4명 중 1명의 지지로 당선됐다는 겁니다. 결선투표를 하는 이유는 국민으로부터 정당성,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결과라면 사실 굳이 2차 투표를 할 필요가 없지요. 2차 투표를 하는 것은 과반의 지지를 넘기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선 ‘내가 찍은 대통령이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겠죠. 그래서 투표율이 정통성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2차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

표율이 너무 낮게 나오니까, 이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의 평균 투표율이 65% 정도예요. 유럽 국가들의 투표율이 보통 60~65%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도 5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칠레의 투표율 42%는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승리했지만, 만약에 득표율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면 그런 논란이 굉장히 심했겠죠. 득표율 차이가 큰 게 그나마 다행이었죠.

김기현: 단순한 승리냐 아니면 압도적 승리냐, 이게 앞으로 정국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우파 진영 신문에서는 압도적 승리가 아니라고 말하려고 투표율을 꺼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체적 수치를 좀 살펴봤는데, 과거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때는 유권자 수가 700만~800만 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의무등록 시행으로 1,500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거의 두 배로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투표 참가율이 예전에는 80%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40~50%였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의 투표수를 보니까, 총 570만 명이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2010년 대선보다 150만, 2006년 대선보다 140만 명이 적어요. 그러니까 투표자가 예전보다 150만 명 정도 줄어든 거죠. 따라서 바첼레트의 총 득표수는 62%의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347만 표예요. 피네라는 359만 표를 얻었고, 바첼레트도 2006년 대선에서는 372만 표를 얻었죠. 결국 바첼레트는 이전 두 번의 선거보다 훨씬 적은 표로 당선된 겁니다. 퍼센티지로는 압도적 승리를 거뒀지만 득표수로는 오히려 피네라보다 적었고 2006년 자신의 득표보다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파 신문이 이걸 몰고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압도적 승리라면 앞으로 정국 운영에 힘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아무래도 개혁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송기도: 그렇죠. 사실 그래서 중남미 국가들이 의무 투표제를 하고 있죠. 페루도 아르헨티나도 투표를 안 하면 벌금을 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투표율이 높아요. 우리도 그걸 생각해 봐야할 문제인 것 같아요. 압도적인 표 차이라면 정권이 정책을 밀고 나가기가 수월해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낮은 투표율로 인한 우려는 많이 불식된 것 같아요. 초창기 바첼레트, 그러니까 지난번 정부 때는 의석수의 부족으로 의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많이 해야 했지만, 이번에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바첼레트의 좌파 연합은 68석을 얻어서 120석의 과반을 넘었어요. 그러면 정책을 펴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무소속 쪽 지지자들까지 합하면 70석까지 되니 과반을 훌쩍 넘긴 거죠. 그러니 투표율 논란은 언론 쪽에서 하는 정치적 수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현서: 투표율 문제는 알리안사 쪽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서 분석한 걸 보니까, 이번 선거를 포함해서 민주화 이후 이번까지 칠레에서 결선투표를 4번 한 것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까지 승자가 54%를 넘지 못했어요. 바첼레트 대통령이 지난번 당선될 때도 53.5%였어요. 그 당시 피네라와 붙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바첼레트가 62%를 얻었고 마테이 후보가 38%를 얻었기 때문에 지난번의 54%를 훨씬 뛰어넘어서 상대방의 두 배에 가까운 득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압도적 차이로 이겼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의회 의석수가 현재 68석으로 조금 부족한 상황이죠. 바첼레트가 추진하려고 하는 상당수의 개혁은 재적 의원의 7분의 4가 필요해요. 계산을 해보면 69명이 나옵니다. 1~2명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도 이번 선거 결과로 충분히 대야협상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헌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재적의원의 3분의 2, 80명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엔 협상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엘렉토랄 리폼(선거제도 개혁)의 경우에는 전체 재적의원의 5분의 3, 계산해보니 72명이더라고요. 그러면 한 4명 정도 부족하죠. 이런 문제는 승리의 여파를 몰아서 현 여당인 알리안사가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선 바첼레트가 충분히 컨센서스를 이룰 힘을 갖게 하는 투표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현: 바첼레트가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토론 후반부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득표수는 적지만 득표율에 있어서는 압도적 승리였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는 있을 듯합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죠. 다음으로 피네라 정부가 경제적으로는 성과가 아주 좋았잖아요. 칠레가 지금까지 중남미에서 가장 경제적인 성과가 좋았는데, 정권 막바지에 피네라에 대한 지지도가 20% 대로 추락한 겁니다. 그게 결국 이번 선거에서 바첼레트의 승리와 우파 패배의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우파가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그렇게 하락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송기도 교수님.

송기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2012년에 학생 시위가 촉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성과는 좋았는데, 부의 분배에서 실패했다. 기본적으로 피네라가 친기업적이었죠. 그런데 지금 바첼레트가 당선되자마자 50가지 사안을 백일 안에 정리하려고 밀어붙이는 모양입니다. 그 내용이 교육개혁과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것이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보면 피네라 정부가 실패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교육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봐

요. 스페인의 『엘 파이스』(El País) 신문을 보니, 두 개 칠레 대학은 입학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 중 가톨릭대학교는 등록금도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빈곤율은 늘어나는데 말입니다. 지니계수도 OECD 국가 중에 꼴찌라고 하던데, 결국 그런 것들이 2012년 학생들을 거리로 뛰쳐나오게 하고, 그것이 증폭되면서 피네라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건 집권 여당의 잘못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악화되도록 해결하지 못한 건 말이죠.

김기현: 성장은 됐는데, 분배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송기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지나치게 성장만 추구하다 보면….

김기현: 특히 교육 기회의 불평등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송기도: 그렇죠. 특히 교육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상현: 저도 동의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피네라가 어떻게 당선됐는지부터 보면 피네라가 왜 재집권에 실패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선거에서, 바첼레트가 연임을 못하니까 지지율 85%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했죠. 그래서 프레이 전 대통령이 중도좌파연합 후보로 다시 나왔는데, 그때가 콘세르타시온이 20년을 집권했을 때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 변화도 없고, 후보도 신선했지가 않았죠. 그에 반해서 피네라는 우리의 이명박 전 대통령 같다고나 할까, 부자의 상징이고 똑똑했죠.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안정적인 민주화를 이뤘고, 안정적 성장도 하고 있는데, 날 뽑아주면 더 잘살게 해주겠다. 1인, 1인 다 잘살게 해주겠다고 해서 찍은 거잖아요. 사실 잘살게 해주겠다는 말이 상당히 막연한 말인데, 사람들은 개개인이 잘살게 해준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죠. 우리도 비슷했지만. 그런데 피네라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학교 성적만 잘 나오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처럼, 경제도 거시경제적 성과에만

집중했죠. 칠레사람 대부분에게 거시경제가 안정적이라는 건 당연한 거였죠. 그런데 옵션을 안 한 거죠.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한다든가, 아니면 복지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해소했어야 하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았죠. 그리고 학생시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어요. 거기에서 피네라가 말실수를 꽤나 많이 했어요. 피네라가 입을 참지 못하는 스타일에, 기업가 출신이라 엄장 지르는 말실수를 많이 했어요. 전형적인 우리나라 기업가의 전형을 보여줬으니 안 된 거죠. 그런 점이 피네라의 지지율이 떨어지게 된 계기였죠. 본인은 다음에 다시 나오겠다고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웃음). 어쨌든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그렇습니다.

김기현: 기현서 대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현서: 예, 같은 의견이에요. 불평등 문제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게 피네라 정부의 실패 원인이고 바첼레트의 성공 요인이 된 거겠죠. 불평등 문제, 경제 사회적 불평등이죠. 따지고 보면 20~21세기에 중남미 좌파 정부가 확산된 상황과 사실상 똑같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2000년까지 중남미 경제의 거시경제 지표는 다 좋았어요. 성장률도 좋았고, 고용도 좋았고, 인플레이션도 진정됐고, 거시경제 쪽으로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운영하면서 거시경제는 좋아졌지만, 그 사이에 경제적 불평등, 소득 불평등은 더 커져갔죠. 그게 좌파정부 등장에 중대한 배경이 됐지 않습니까. 칠레에서는 경제적 소득 불평등의 문제가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생운동으로 분출되었고, 피네라는 이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못했죠. 그런데 사실은 학생운동이 바첼레트 대통령 말기에 시작되었는데, 피네라 대통령이 다 뒤집어쓴 셈이 됐어요. 그리고 바첼레트 대통령이 다시 잘하겠다는 입장이 돼있어요. 그렇게 보면 조금은 역설적이죠.

이상현: 그렇죠, 그 역설이 펭귄 무브먼트(고등학생 시위)라고 해서, 바첼레트 대통령 때의 학생들이 이젠 대학에 들어가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의 세대를 형성했어요.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도 그것인데요. 지난여름에 칠레에 갔을 때 사람들에게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느냐고 물어봤더니, 100% 바첼레트라더군요. 그래서 바첼레트가 왜 좋느냐고 물었더니, 어머니 같은 리더십 등의 말이 나오더라고요. 사회학자들의 분석을 보면 바첼레트 임기 때의 성과가 별로 없다는데, 라고 했더니, 바첼레트는 하고 싶었는데 우파에서 못하게 막아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공평하다, 우파도 다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았겠느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안 하고 싶은 정권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했더니, 그건 네가 몰라서 그런다, 바첼레트는 다르다, 라고 하더군요. 요즘 애들 쓰는 말로 바첼레트가 까방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웃음). 바첼레트는 하고 싶었는데 못 한 사람이고, 다른 대통령들은 국민들에게 잘하고 싶은 의도도 없었다, 이런 식이죠.

김기현: 그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나는데, 바첼레트가 전 임기 중에 제일 잘못된 것 중의 하나가 2010년 지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엄청 확대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테이가 계속 물고 늘어졌는데, 국민들은 ‘바첼레트는 할 만큼 다 했다, 할 만큼 다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국민들이 바첼레트가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는 신뢰감, 이걸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피네라 정부, 우파 정부는 성장만으로는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역시 적절한 분배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칠레 변화의 방향을 논의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미첼 바첼레트 칠레대통령 당선자

송기도: 저는 이번 선거에서 특기할 사항으로 공산당이 누에바 마요리아에 들어왔음을 지적하고 싶어요. 예전 콘세르타시온에서는 공산당이 배제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바첼레트가 들어오면서 중도좌파연합에 공산당이 들어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공산당이 정부 여당으로 들어온 건 지켜봐야 할 문제이지요. 3월에 출범하면 공산당원을, 우리식으로 하면, 빨갱이를 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냐(웃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거든요. 공산주의자가 각료가 됐을 때 칠레 사회가 바첼레트 정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말이지요.

김기현: 우리 식으로 하면 민주당 정부가 통합진보당원을 각료로 임명하는 것과 같은….

송기도: 통합진보당은 공산당도 아니죠.

김기현: 느낌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송기도: 거기는 공식적으로 공산당이죠. 그런데 공산당이라고 해서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유럽코뮤니즘 비슷하죠. 라틴아메리카가 2000년 들어와서 엄청나게 바뀌었잖아요? 그런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힘이 형편없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라틴아메리카를 지배한 것은 디바이디드 앤드 룰(divided and rule)로, 내셔널 시큐리티 독트린(National Security Doctrine)으로 지배해왔던 말이지요. 미주기구를 통해서 라틴아메리카를 지배해 왔는데, 이게 지금 셀락(CELAC: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공동체)으로 바뀌었잖아요. 셀락에는 33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다 들어왔는데, 미국하고 캐나다는 빼버렸던 말이지요. 그만큼 미국의 힘이 빠져서 금년 초에는 미국도 상당히 라틴아메리카에 대해 전향적 자세로 변했어요. 미국의 국무장관이 먼로주의는 끝났다고 선언했잖아요. 먼로주의가 끝났다는 것은 이제 중남미가 내 뒷마당이 아니라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칠레에서 누에바 마요리아가 공산주의자까지 포함시켰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이라면 꿈도 못 꾸는 일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산당을 콘세르타시온에 안 넣었겠죠. 그런데 이제 공산당을 넣어도 된다는 것은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고, 이것은 중남미 전체로 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현: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산당을 포함시킨 게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누에바 마요리아는 아옌테의 인민연합 플러스 기독교민주당(Demócrata Cristiano)이 된 것인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죠. 또 공산당이 집권여당에 들어간 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글라디스 마린(Gladys Marín)이라는 공산당 당수가 있었어요. 공산당에서는 아옌테 급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지지도가 높고 영향

력 있는 여성 정치가였는데, 글라디스 마린이 몇 년 전에 암으로 죽었어요. 사실 과거 선거의 1차 라운드 48:46의 나머지 5%가 글라디스 마린 표였거든요. 글라디스 마린이 없어지면서 중도좌파연합이 공산당을 일종의 흡수, 즉 끌어들이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할 수 있죠. 그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현: 작년 학생운동의 여성 스타 있잖습니까? 그녀도 공산당 소속이죠?

이상현: 카밀라 바예호(Camila Vallejo).

김기현: 예, 이번에 의원이 됐다고 하던데….

이상현: 예, 플로리다 구역에서.

김기현: 하원의원이죠?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기현서: 학생운동 출신 4명이 이번에 의원이 된 것으로 나오네요.

김기현: 예. 여기까지 선거의 의미를 짚어봤고요. 이제 앞으로 변화 방향을 이야기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가 있기 전에 미국의 보수적 잡지, 포브스가 “바첼레트가 된다면 새로운 사회주의 정책들이 추진될 것이고, 기적을 이뤘던 칠레 경제는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반(半)협박성 멘트를 냈고, 우파도 “바첼레트가 되면 차베스식 모델을 추구할 것이다”라고 위협을 했었죠. 어쨌든 좌향좌는 맞는데, 바첼레트가 얼마만큼 좌향좌를 할 것인가, 180° 좌향좌를 할 것인가, 아니면 90° 혹은 30° 정도 움직일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세부적인 것은 차차 논의하기로 하고,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얘기를 해보죠.

기현서: 누에바 마요리아에 공산당이 참여함으로써 바첼레트 대통령의 과거 1기 정부보다는 좌파 정책을 많이 쓸 것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입니다. 기업가들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죠. 중남미 좌파정부와 연관시켜서 본다면,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국호에도 소셜리스트란 말이 들어가 있고, 그동안 차베스가 14년 동안 지배, 통치하면서 법률이라든지 제도를 거의 사회주의 국가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의 사고, 교육, 이런 모든 부분에서 시스템 자체의 사회주의 국가로의 변화가 상당히 진척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좌파 정부가 집권한 국가의 경우, 칠레를 포함해서, 법률과 제도 등은 그대로예요. 좌파정부의 성향도, 『포브스』지는 조금 강한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본 틀을 흔들지 않고 그 범주 내에서 정책을 펴고 있어요. 따라서 우파정부라고 하는 피네라 정부와 좌파정부라고 하는 바첼레트 정부의 차이는 이념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고, 다만 소위 성장과 분배정책 어느 쪽에 더 강조점을 두는가에 대한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처럼 기본 틀이 깨진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기본 틀 속에서 정책이 변하는 거지요. 성장보다 분배를 좀 더 강조하는 형태의 정책운명을 할 것으로 봐요. 기본 틀에는 그다지 큰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현: 예, 저도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예전 같으면 의회 분포상, 바첼레트가 이겼으면 집권중도좌파연합의 맨 오른쪽에 있는 기독교민주당과 집권야당연합인 우파연합에서 왼쪽에 있는 국민혁신당(Renovación Nacional)과의 중간 정도의 선에서 정책들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68석에 +4까지 있기 때문에, 게다가 공산당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 추가될 게 이번에 우파연합이 사실상 1라운드에서 25%밖에 나오지 않았고, 자기네들도 왜 패했는지는 알고 있는 상황이고, 복지 같은 것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청년층에서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니까, 지지층 회복을 위해서는 복지정책을 반대할 수 없거든요. 제 생각에, 예전 같으면 기독교민주당과 국민혁신당 사이지

만, 이번 같은 경우는 중도좌파연합 내부의 기독교민주당과 사회당의 중간 정도 선, 그만큼 한 칸 내지는 한 칸 반 정도 좌측으로 갔다고 하는 정도로 결론날 것 같습니다.

송기도: 저도 비슷합니다. 먼저 미국의 신문보도 같은 건 믿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웃음). 옛날에 톨라가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이 난리 났었죠. “톨라가 대통령이 되면 브라질은 그날로 끝이다” 부터 시작해서 투자를 다 어렵다는 등 그랬었죠. 톨라가 되고나서도 톨라는 양의 털을 쓴 빨간 이리, 빨갱이라고 그랬죠. 톨라가 되고나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지만, 톨라는 탁월한 지도력을 인정받았죠.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바첼레트는 지난 1기 정권 시절에 그다지 과격하지 않았어요. 결국 톨라의 좌파 실용주의가 지지를 받았듯이, 그것과 같은 선상에 있던 말이죠. 중남미의 전체적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차베스가 살아있다면 모르겠어요. 그 영향이 어떨지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 공산당이 집권당 연합에 들어갔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현 교수가 얘기한 대로 한 단계 정도 왼쪽으로 더 가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바첼레트의 과거 정책들, 그리고 최근의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렇게 급진적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바첼레트는 선거기간 동안 조세개혁을 통해 법인세율을 인상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조금은 하겠죠. 왜냐하면 알리안사(Alianza), 즉 우파연합도 분위기가 복지확대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안 되겠다” 불평등 문제 처리를 위해 좌파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 없죠. 여기서 계속 거부했다가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언론에선 그냥 하는 소리고요.

김기현: 그 사람들도 그렇게 정말 될 거라고 보기보다는, 견제구를 날리는 차원

에서, 그렇게 되는 걸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첼레트 정부가 기존의 경제 모델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분배 쪽으로 신경을 좀 더 쓰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데에는 다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변화될 정책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겠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교육개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사회적 시위의 주된 요인도 교육문제 때문이었고요, 사회적 불평등 중에서도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도 교육의 불평등 문제인 것 같은데요. 도대체 칠레 사회 교육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교육개혁을 하려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현 선생님.

이상현: 교육제도는 저도 잘 알지 못해서 물어봤습니다. 칠레 교육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되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 분야의 전문가인 계명대학교의 박윤주 교수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우선 중고등학교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decentralization)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펀딩을 해요. 또 뭘 했냐 하면, 교육 선택권을 준다고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자기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학교를 갈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강북에 사는 학생이, 나는 강남학교 가고 싶어요, 그러면 강남학교에 가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공립학교가 국가지원을 받을 때 학생 수로 받아요. 그래서 가난한 지방자치단체(Municipalidad)에 있는 학교는 학생들이 빠져나가니 학교가 점점 부실화되는 거죠. 그게 공교육 부실화를 가져왔죠. 그래서 학생들이 사립학교에 가면, 바우처가 있다고 했으니까, 사립학교로 그 지원금이 가요. 이렇게 가난한 동네 공립학교도 무너지고, 부자 동네에 있는 공립학교들도 점점 사립학교에 의해 부실화되는, 교육 불균형이 상당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죠.

김기현: 사립학교는 국가에서도 돈을 받고 학생의 등록금도 이중으로 받는다는 말씀이죠?

이상현: 예, 등록금도 받는 상황이죠. 우리로 치면 외고라든가 과학교 같은 경우가 비슷한 예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는 학교들이 건잡을 수 없이 붕괴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가서 봤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다 나와서 학생을 유치하려고 박람회 여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교육 불균형이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른 거죠.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했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게 되죠. 그런데 대학은 어떤 시스템이냐. 대학교도 국가가 지원해 주죠. 우선 설립을 자유화해서 쉽게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해줬고 등록금도 상당히 풀어줬어요. 그래서 등록금도 올랐죠. 그리고 국가가 지원을 하는데, 성적으로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면 유리하죠. 칠레에서도 학력고사 같은 걸 보는데, 학력고사 성적에 따라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 대학에 지원이 많이 가요. 그래서 학교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사립학교들, 새로 생긴 사립학교들이 제법 많은데, 공부 잘하는 학생이 오면 등록금을 무료로 해줘요. 우리도 우수한 학생에게는 등록금 깎아주잖아요. 대신에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엄청나게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우수한 학생들의 등록금을 보조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죠. 처음에 생각할 때는 아주 단순한 생각에, 우리나라에선 이거 먹히겠다, 싶더라고요. 교육을 통해서 빈부격차 문제 등을 해소하겠다는 거니까. 공부해라, 공부하면 더 잘살 수 있다, 이게 교육 시스템의 근간인데, 이게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온 이유는, 무한경쟁 시스템으로 불평등을 부추킨다는 겁니다. 공부를 조금만 못해도 등록금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김기현: 칠레대학교(Universidad de Chile)는 국립대학교인데도 등록금을 납부하나요?

이상현: 제가 알기로는 칠레대학교에도 이 시스템이 적용되는 걸로 알아요. 제도적으로 보면 다르긴 하지만, 우리 카이스트가 성적에 따라 등록금을 차별적으로 받겠다는 것과 비슷하게 되어어요. 칠레 가톨릭대학교도 요즘은 공부 잘하는 학생을 유치하려고 경쟁에 뛰어들었어요. 사립과 공립이 학생유치로 싸우면서 공립이 밀리고 있죠. 공립대는 훨씬 더 경직된 등록금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요.

김기현: 최근에 기업들이 대학을 많이 설립했더라고요.

이상현: 예.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 학교들이 다 정부 펀드를 받으려고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그러다 보니 등록금이 올라가는 거죠.

김기현: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추가하실 게 있습니까?

기현서: 중고등학교에서 정부 지원은 상당히 이뤄졌지만, 대학교육 지원은 그것만 못했어요. 이걸 왜곡해서 본다면, 교육의 하향평준화는 없었다고 하지만 상향평준화는 조금 제한을 둘 수도 있다는 논리도 되는 거예요. 어디에 썩어져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식민지 시절 이후부터 계속 기득권을 유지했던 기득권층에서 본다면, 어느 시대나 하층에서 치고 올라오는 것은 조금 누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교육 수준은 이뤄지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에 제한을 두면 그런 부분에서 변화를 유예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육의 문제에는 흐름상으로 보면 그런 요소가 잠재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육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립과 공립에서의 교육의 질 문제예요. 공립교육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 중에는 시설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교사의 자질, 좋은 교사를 확보하지 못하

는 것은 급여가 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사들이 시위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바첼레트 대통령이 앞으로 해소해야 하는 것이죠. 대학교육은 우선적으로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보니 가계 소득에 비해 너무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교육을 해달라는 거고요. 칠레 대학생들이 1990년대는 20만 명, 지금은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해요. 대학생 수가 굉장히 늘어난 거죠.

이상현: 제가 관심 있는 분야라서 다른 나라들도 봤는데, 최근 들어 이게 칠레만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라틴아메리카 곳곳이 지금 교육 때문에 난리도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신자유주의 임팩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거시적으로 말이죠. 칠레가 주제이지만 사실 칠레만이 아니고 페루도 그렇고, 심지어는 볼리비아까지도 대학교가 엄청나게 늘고, 대학교 광고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학생들이 다 대학교 가겠다고 하고, 이게 라틴아메리카에서 최근 10~20년, 아니 최근 10년 사이에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중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심한 나라가 칠레예요. 제가 지난겨울에 칠레에 있을 때, 학력고사 점수 발표하는 날이었는데, 전 신문에 학교 등급부터 다 나오고 온 나라가 톱뉴스로 학력고사 결과를 발표했죠.

김기현: 칠레는 각 고등학교마다 학력고사 평균 성적이 다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고등학교 순위가 학생 성적에 따라서 모두 매겨지는 거죠.

이상현: 그게 정부지원을 받는 데에도 하나의 기준이 되거든요.

송기도: 문제는 지금 칠레의, 앞서 언급한 두 대학, 칠레대학교와 가톨릭대학교에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무한정 입학생을 늘릴 수는 없고, 그런데 일반 사립대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들 대학들의 등록금이 매우 비쌉니다. 『엘 파이스』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두 개 대



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을 해봐야 갈 데가 없다” 라고 말이죠. 칠레 내에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를 안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죠. 다니자니 국민소득에 비해 등록금 수준이 너무 높아요. 장래에 대한 보장도 없고, 칠레 국민소득이 구매 환산율로 계산하면 우리의 절반 정도 된다는데 대학 등록금은 오히려 우리보다 2배나 비싸죠. 그렇다면 우리보다 등록금이 4배 이상 비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학 다니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바첼레트가 공약으로 내놓은 것 중 하나가 앞서 두 개 대학의 정원 20%를 칠레 국민 하위 40%에 배정하겠다는 거예요.

김기현: 말이 나온 김에 교육개혁까지 말씀해주시죠.

송기도: 교육개혁 내용은 두 가지로 알고 있어요. 고등교육 감독기관 철저히 하겠다. 그런데 그건 행정적인 것이니까 제외하고. 중요한 것은 칠레대학교와 가톨릭대학교 정원의 20%를 강제로 국민소득 최하위 40% 이하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겠다는 거예요. 상당히 사회주의적 발상이죠.

기현서: 주한칠레대사관에서 정보를 많이 얻는 것 같아요.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웃음)

송기도: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웃음)

김기현: 등록금 문제도 있던데요, 교육개혁에서요.

이상현: 제가 보니까, 4년 이내에 소득 하위 70%의 등록금을 국가가 지급하겠다. 이건 100일 이내가 아니라 4년 이내에. 그리고 대학교를 100개 정도 더 늘리겠다. 제가 보기엔 국립 시스템이나 직업교육 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대학교 등록금 인상폭을 통제, 동결하겠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혁을 위해 돈이 필요하죠. 특히, 소득 하위 70% 등록금 국가 지급은 부분적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거죠. 추려서 보면, 지금

까지는 성적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되던 시스템이었다면, 이젠 소득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거죠. 시스템 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김기현: 결국 70%에 무상으로 등록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거네요. 우리도 70%인데, 우리는 차등해서 주고 있지만 거기는 다 주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결국 재원인 것 같은데요.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GDP의 1.5~2.0%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제개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경제성장도 같이 동반되어야 할 텐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칠레 경제의 전망과 세제개혁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지요. 송기도 교수님.

송기도: 현재 나온 것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법인세를 20%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고요. 법인세를 인상한다는 건 의미가 크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도 현재 법인세가 20~22%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계속 법인세율이 낮아져왔어요. 예전에는 25~27% 정도였죠. 그런데 우리는 법인세가 단계별로 되어 있죠. 조그만 기업은 16% 정도까지 조금내고, 매출이 200억 이상 되는 기업들은 법인세율이 22%로 되어있죠. 칠레가 평균 법인세율이 20%인데 25%로 올리는 건 상당히 많이 올리는 거죠. 그런데 사실 칠레가 중남미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친시장적인 나라인데, 법인세율을 5% 올리겠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공약을 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외국인투자법 철폐를 공약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납세제외기금 철폐라는 게 있어요. 납세제외기금이 뭔가 했더니, 회사들이 미래 투자를 위해서 쓰려고 투자용으로 남겨둔 자본이라고 하면 그것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아주 재밌는 제도가 있어요.

김기현: 회사 수익 중에 투자를 하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일시적으로 면제해준

다는 건가요?

송기도: 아니, 과세대상에서 빼준다는 거죠.

김기현: 그러니까...

송기도: 예, 세금을 걷지 않는다. 그런데 그걸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에서도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할 것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개혁이라는 게 말은 쉬운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자금이에요. 개혁을 하려면 뒷받침이 되는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자금을 어디서 끌어내느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피네라가 기업 성장시키면서 자금을 만들긴 했죠. 그렇다면 바첼레트는 결국은 부자로부터 걷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는데요.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상현: 방금 말씀하신 법인세 20%에서 25% 인상, 그리고 납세제외기금 폐지가 재원마련 수단인데요. 이게 둘 다 의회에서 과반수면 통과된대요. 세계개혁은 과반수면 되기 때문에 거의 통과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소득세는 오히려 조금 낮춰주고, 그러면 거시경제 쪽을 봐야하는데, 칠레가 피네라 때는 성장률이 5.7% 정도였는데, 바첼레트 임기 중에는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칠레는 모든 관건이 구리에 있거든요. 칠레 구리가 2011년에 파운드당 4.5달러, 이게 가장 높았을 때고요, 지금은 3.3달러로 많이 내렸죠. 칠레는 예산 편성할 때, 지금 2014년 예산도 구리 가격 3달러 기준으로 짜놨어요. 칠레는 모든 걸 상당히 보수적으로 짜는 편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는 큰 문제가 없고, 법인세만 제대로 들어와도 교육투자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재정적자도 거의 없는 상태죠. 중요한 관건은 앞으로 성장률인데 칠레 전체 구리의 25%가 중국으로 가거든요. 구리 값의 모든 것은 중국에 달려있는 거

예요. 예상하기로 중국이 7% 성장을 하면 칠레가 4~5% 성장하는 것으로 예상돼요. 거의 연동되어 있다시피 하죠. 이코노미스트지나 다른 여러 기관들의 예상을 보면, 4~5년 동안 4%대 성장은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심지어 칠레 경제의 위기설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칠레의 무역흑자가 줄어들면서 외환위기를 맞을 거라는 말까지 나왔죠. 어쨌든 앞으로 칠레 경제가 호황은 아닐 거예요. 구리 값이 4.4달러 이상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호황은 아니지만 경제성장률을 4~5% 정도 유지하고, 바첼레트가 세계개혁만 하면 재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지금 칠레의 신용도가 세계 34위예요. 라틴아메리카에서는 1위이고요. 중국과 거의 비슷한 신용등급이기 때문에 등급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상태고요. 4%대 후반이 앞으로 대체로 예상되는 성장률이 될 것 같아요.

김기현: 방금 말씀하셨지만, 세계개혁처럼 과반수로 통과하는 게 있고, 5분의 3 통과가 있고 7분의 4 통과가 있고, 3분의 2 통과가 있고, 법안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계개혁은 과반수면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도좌파연합의 의석수가 과반을 넘기 때문에 세계개혁안이 어렵지 않게 통과하는 건데, 과연 법인세 20%에서 25% 인상이면 상당한 인상폭인데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일겠습니까?

이상현: 『엘 메르쿠리오』 같은 데서 외국인이 투자하지 않을 거라 하는데, 한꺼번에 올린다고보다는 1%씩 올린다는 말도 있어요.

기현서: 예, 단계적으로 4년에 걸쳐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상현: 이 정도는 받아들여야죠. 또 칠레는 받아들이는 시스템이니까. 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김기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칠레 선거 시

시스템이 문제인데요. 칠레 선거 시스템이 유명한 바이노미널(binominal) 시스템이라고,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됩니까?

이상현: 선거구별 개방형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입니다.

김기현: 말 그대로 하면, 이중후보 지명 시스템이나….

이상현: 이걸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인데, 선거구별로 적용해요. 선거구별로 발표를 하는 거죠. 선거구별 비례대표제이니까, 각 선거연합들이 선거구별로 지정된 두 석을 다 차지하려면 3분의 2 이상 득표를 해야 돼요. 67% 이상 나와야지 두 석을 차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피노체트가 만든 거예요. 이걸 우파가 각 선거구에서 한 명이라도 당선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죠. 문제는 선거구별로 비례대표를 실시하기 때문에 결국엔 양당제로 귀결돼버려요. 그러니까 무소속이 표를 얻기가 아주 어려운 제도죠.

김기현: 그러니까 각 선거연합이 선거구별로 2명씩 후보를 내는 거죠. 각 선거구별로 2명씩 후보를 내서, 만약에 A선거연합의 한 후보가 30%를 받고 다른 후보가 20%를 받고, B선거연합에서 한 후보가 19%를 받고 나머지 한 후보가 15%를 받았다고 하면, A의 두 후보가 다 되는 게 아니라, 30% 받은 A의 후보와 19%를 받은 B의 후보가 되는 거죠. A 후보들의 득표율을 합해봐야 50%로 67%를 넘지 못하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 양당제로 가게 되는 거죠. 결국 우파가 각 선거구에서 한 석이라도 걸쳐놓으려는 건데, 이걸 개혁하겠다는 거겠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능성이 어떨지요.

이상현: 쉽지 않죠. 헌법 개정 사항인데, 그렇게 하려면 3분의 2 찬성을 얻어내야 하거든요.

기현서: 야권에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개혁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송기도: 피노체트가 정권을 놓고 가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게 많지

요, 이것도 그중의 하나예요.

기현서: 라고스 대통령이 2005년에 헌법 개정으로 그런 조건을 많이 청산하긴 했는데 이걸 아직 깨지 못했어요.

김기현: 이게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거죠? 다른 모든 특권을 대부분 철폐했는데 이것만 남은 거죠.

이상현: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모든 걸 다 가로막고 있어요. 이번 선거에서 우리처럼 1개 선거구당 1명씩 뽑았다면 우파연합은 전체 의석의 30%도 못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40%에 육박하게 얻어냈잖아요.

김기현: 지금 의석이 하원 120석 중에 68석이 누에바 마요리아이고, 상원은 38석 중에 21석이니까, 중도좌파연합이 각각 과반수를 조금 넘는 정도네요.

이상현: 시스템이 이러니 의석을 더 차지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알리안사가 하원 120석 중에 48석이고요, 상원이 16석이거든요. 아마 소선거구제였으면 10%도 안 나올 수 있죠. 우리나라 같은 선거구 제도라면.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10%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의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득권 놓기가 쉽지 않죠.

김기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제만 더 짚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문제인데, 칠레가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와 함께 태평양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맹을 맺을 때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도 우파였었고, 칠레도 피네라 우파정부, 콜롬비아도 우리베 우파정부, 멕시코도 칼데론 우파정부, 그러니까 우파동맹처럼 태평양동맹이 시작했죠. 반대로 메르코수르(Mercosur) 같은 경우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볼리비아, 전부 다 좌파 정부였죠. 좌파 대 우파, 두 모델의 대결처럼 되어 있었는데, 현재 페루의 경우, 좌파인 우말라 대통령이 들어왔지만 우파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태평양동맹의 틀을 깨지 않았어

요. 이제 칠레에서 좌파 바첼레트가 집권함으로써 이 구도가 어떻게 될지 말이지요. 이번에 중앙일보를 보니까, 남미의 ABC 3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이 다 여성대통령이니, ABC 좌파 여성대통령 연합체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웃음) 외교와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해보죠.

송기도: 『중앙일보』에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김기현: 어떤 기자가 그런 상상을 했더라고요.(웃음). 어쨌든 앞으로 메르코수르, 태평양동맹의 전망에 대해 한 번만 짚어주시죠.

기현서: 그 부분은 바첼레트 대통령의 성향보다는 칠레라는 국가가 굉장히 냉정한 국가라는 점을 봐야 할 듯합니다. 일례로 칠레 공무원이나 비즈니스맨들은 절대 목적 없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말이지요. 점심을 먹자든지, 저녁을 먹자고 할 때는 분명하게 목표가 있어야 해요. 간단히 만나서 프렌드십으로 뭘 좀 먹자고 하면 약속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만나자고 해도 물어봐요. 뭇 때문이냐고. 전반적으로 사회분위기가 합리적이고 냉정한 데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념적이기보다는, 조금 전에 좌파정부에서 분배정책을 강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한다는 것이지, 어떤 이념에 현혹이 돼서 이모셔널(emotional)하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칠레가 지향하는 것은 태평양 국가입니다. 그래서 칠레가 자유무역 시스템을 확대하면서 대아시아 교역을 확대하게 된 외교적 이유 중의 하나가 대미 무역의 존도,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 전술이었어요. 대미 무역의존도를 줄이면서 대아시아 교역 의존도를 높였다는 것이었죠. 지금 칠레의 대아시아 교역의존도가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그만큼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달성한 거죠. 그러니까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이유로 메

르코수르와 접촉하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태평양국가의 입장 그리고 미국과 칠레 FTA의 이익을 희생하고 메르코수르와 협력할 국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ABC 국가가 여성대통령이니까, 이런 논리의 발상은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현: 저도 비슷한데, 조금 다른 의견이에요. 칠레 대외 무역정책의 기본이 ‘다 한다’잖아요? 질 수 있는 데는 다 끼고 있어요. 지금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동반자협정), 거기도 걸려있고, 태평양 동맹에도 끼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념적으로 본다면 그건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념적으로 보는 거겠죠. 칠레가 지금까지 FTA 60개를 했고, 최근에 60개를 넘었어요. 최근에 말레이시아와도 했죠, 거의 한 달에 하나씩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63개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다 한다’는 입장이지요. 칠레 같은 경우, 경쟁력 확실한 물건들이 있고, 구리나 수산물도 있고, 사실 국내 물가조절하고 경쟁시키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 한다’예요. 그러니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기현서 대사님 말씀 인정하고요. 하나 봐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메르코수르와도 조금 더 우호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옵서버, 준회원 정도로 머물렀는데, 이제는 메르코수르 가입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기현: 그런데 지금 메르코수르가 상당히 정치화되고 메르코수르의 방향이 보호주의로 나가는 성향이 있잖아요.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브라질도 그렇고. 한편 칠레정부는 좌파정부이지만 계속해서 개방을 유지해나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메르코수르와의 관계가….

이상현: 협상의 여지는 있는데, 협상만 가능하면, 칠레는 FTA의 문턱을 아주 낮춰놨기 때문에 FTA 맺는 게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것만 맞으면 하겠



다는 입장이더라고요. 양다리 다 걸치겠다는….

기현서: 칠레가 메르코수르에 들어가면 이익이, 역내교역의 이익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브라질로 가는 것도 안데스 산맥이 막혀 있으니 남미 남단으로 돌아서 가야 하고, 아르헨티나로 물건을 보내는 것도 안데스 산맥의 멘도사 쪽을 넘어가야 하고, 그런 교역 조건이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메르코수르에 가입할 거였으면 옛날에 가입했겠죠. TPP의 경우도 보면, 원래 P4(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P4의 시작은 태평양 연근해에서 중국, 러시아, 한국 어선이 들어와서 공해상에서 회귀어족들을 몽땅 잡아버리니까 그걸 막아보자고 뉴질랜드와 칠레가 교섭을 하다가 P4로 발전을 했거든요. 그걸 미국이 잡아서 지금 TPP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원은 P4에서 시작됐어요. 참여국은 뉴질랜드, 브루나이, 칠레, 싱가포르였죠. 2005년도에 뉴질랜드 대사와 친했는데 뉴질랜드 대사가 가끔 P4 얘기를 하면서 장차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걸 몇 번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참여한 국가의 경제력을 보면, 칠레를 포함해서 그다지 큰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의미가 그렇게 클까 했는데, 그게 TPP로 간 거죠. 그때 그 사람이 안목이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칠레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은 아시아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요. 미국과도 합리적으로 해줄 것은 하고 안 해줄 것은 강하게 거부하면서 일정한 기준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대서양 쪽 메르코수르 국가들과는 선린관계를 유지하지만, 지금 이들 국가는 보호무역주의적인 입장을 점점 강화하고 있거든요. 아마 거기에 맞춰지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기도: 저도 기현서 전 대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지경학적으로 칠레와 메르코수르 국가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발전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칠레가 안데스로 인해서 아르헨티나와 막혀 있잖아요. 그리고 태평양 시대를 선도해 왔던 나라가 칠레라고 보고, 칠레 입장에서는 안데스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나 브라질과의 교역보다는 오히려 미국 쪽과 더 가까이 해 왔었는데, 그 방향이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갔단 말이죠. 10~20여 년 전부터 말이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고 봐요. 결국 칠레는 태평양동맹 쪽에 있는 것이 나쁘지 않은데 굳이 거길 빠져나와서 좌파집권국가들의 메르코수르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이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상현: 제가 말하는 건 태평양동맹을 빠져서 메르코수르로 간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강화하면서 저것도 강화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메르코수르나 볼리비아 쪽이랑 관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칠레와 볼리비아 관계에 관한 것이예요. 칠레와 볼리비아 관계가 거의 100년 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슈인데, 2006년에 모랄레스와 바첼레트가, 둘 다 일정 정도 좌파정권인데, 거의 100년 만에 제대로 만났어요. 그 전에 물론 피노체트랑 우고 반세르랑 형식적으로 한 번 만나기는 했지만, 모랄레스와 바첼레트는 둘이 만나서 실질적으로 13개 협상 어젠다를 설정했어요. 심지어는 국경통합 문제까지 다루기로 하자고 하다가 언론에, 아마 『라 테르세라』일 거예요, 누설되고 어영부영하다가 정권이 바뀌어버렸는데, 이번엔 그 문제도 다시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바첼레트 1기 때와는 다르게, 그리고 기존 흐름이 절대 바뀐다는 얘기는 아니됩니다. 엇그제 말레이시아와 FTA를 할 정도이니 태평양 중시 정책이 바뀌지는 않는데, 피네라가 그동안, 한 4년

동안, 메르코수르 쪽 이웃 나라와 잘 안 놀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바첼레트는 그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정책들을 펴지 않았는가. 따라서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심지어는 협상이 맞으면, 원래 칠레는 안 맞아도 하거든요, 그러니 메르코수르와도 충분히 관계 확대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김기현: 비록 좌파 정부가 들어섰지만 칠레는 기존의 태평양동맹을 계속 강화될 것이고, 친(親) 아시아 기조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다만, 메르코수르의 좌파정부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현서: 한 가지 부연설명을 하자면, 칠레가 에너지 자원만 가지고 있었으면 충분히 강대국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칠레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자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나 브라질이 했던 정치적 인플루언스(영향력)를 행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가스나 석유가 조금 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태이죠. 지금은 LNG를 배로 수입할 수 있지만 아르헨티나라든지 볼리비아라든지 페루라든지 이런 데서 육로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공급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칠레 외교 정책에서 보면 인근 국가와 선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중요한 외교 목표로 나옵니다. 칠레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 자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너지 자원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과 마찰이 있으면 그 부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대서양쪽 국가들과 협조를 해야 한다면 무역보다는 에너지 쪽이라고 봅니다.

김기현: 좋습니다. 토론을 마감하기 위해서, 송기도 교수님부터 혹시나 우리가 짚지 못했던 다른 중요한 문제가 또 있다거나, 아니면 최종 정리 발언을

해주시지요.

송기도: 바첼레트와 관련해서는 안 나온 게 없는 것 같고, 나오지 않은 것은 한국과 칠레 관계이네요. 한국과 칠레 관계에 대해서, 기현서 전 대사님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국은 우파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반면에 칠레는 그렇지 않잖아요. 과거에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칠레는 라고스 정부였고, 이때는 서로 진보적 성격의 정부였고….

기현서: 우리가 칠레를 보는 관점은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칠레의 정치적 상황을 잊고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칠레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우리와의 경제, 무역 관계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칠레와 우리의 FTA 효과 면에 있어서는, 칠레가 일본, 중국과도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의 FTA 비교우위가 사실상 사라졌어요. 칠레 내에서 한-칠레 FTA의 비교우위가 말이지요. 경쟁 국가들이 다 FTA를 체결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한-칠레 관계가 과거보다 우의 관계가 더 많이 깊어졌는가? 제 생각에는 한-칠레 FTA 협상에서 칠레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과수를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후속 협상이 필요한데, 검역 문제로 우리 정부와의 협상이 지지부진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든 검역관계 절차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절차를 따르고 있는데, 칠레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느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귤이나 오렌지, 자몽 같은 건 같은 종이니까 패키지로 통과시켜주면 좋은데 우리 검역 시스템이 세 가지를 개별적으로 검역하게 되어 있으니 기한이 한없이 늘어지고 있죠. 그래서 조금은 외교적 불편함이 늘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점들이 앞으로 우리 상품을 수출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현재 정권 바뀌는 것과 한-칠레 관계는 연관이 없다고 봅니다.

김기현: 이상현 선생님도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이상현: 대충 얘기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칠레 정권에 대해서 볼 게, 칠레 정당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공산당이 새로 들어가고 했으니, 연정 정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이고요. 또 하나 볼 게 여권과 야권의 연합, 특히 우파 연합인 국민혁신당과 독립민주연합(UDI)이 어떻게 관계를 재설정할 것인가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우파의 양당연합 구조가 깨질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 워낙 우파가 깨졌기 때문에, 국민혁신당이나 독립민주연합이 사실 사이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중도좌파 쪽이 뭉쳐있으니까 자기들도 뭉쳐있는 건데, 국민혁신당은 먹히는데 독립민주연합은 전혀 정치적 상품성이 없다는 게 입증됐기 때문에... 또 중도좌파 연합 쪽에서는 공산당이 들어오고 하니 지금 기독교민주당이 불만이 많거든요. 기독교민주당이 사실 우파에서 나왔고, 자신의 후보인 프레이도 지난 대선에서 졌고, 그래서 중도좌파연합 내에서 외면 받고 있다는데, 그래서 국민혁신당과 기독교민주당이 만난다는 소설을 쓰는 분도 있고요.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연정 정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볼 게, 칠레가 중남미 국가 중에서 가장 의아한 정책을 취했던 부분이 원주민 정책이에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페루, 아르헨티나까지 나름대로 적절한 원주민 정책을 취한데 반해, 칠레는 원주민 운동을 외면하거나 심지어 탄압했거든요. 작년에는 마푸체 원주민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서로 죽이고 죽고해서 원주민 문제가 상당히 큰 이슈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첼레트가 원주민부(部)를 만들겠다고,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169호 협약을 존중하겠다고 하니. 남부의 노베나(칠레 행정구역에서 9주)나 데시마(칠레 행

정구역에서 10주)의 땅에 대한 원주민의 소유권 요구 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도 지켜볼 만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김기현: 감사합니다. 칠레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주최 제1회 시사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